

AUTHOR 김성린

TITLE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의

IN 월간고신

37호 (10, 1984): 42-46.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의

김 성 린
고신대 교수·철학

1. 역사적 상황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1517년 비텐베르그(Wittenberg) 교회의 문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적인 탈선과 신앙의 부패를 문제삼아 95개조의 항의문을 제제한 것이 기폭점이 되어서 종교개혁(Reformation)의 불길은 걸잡을 수 없는 힘으로 삽시간에 구라파 전역을 휩쓸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루터 자신도 이렇게 문제가 크게,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이 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만년에 '하나님은 나를 마치 말(馬)처럼 이끌어 가셨다. 그의 눈은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졌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이 루터자신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불과 2~3주 내에 구라파 각국에 퍼져나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위하여 괴중한 바용을 부담한 봉건제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종교개혁 운동

을 성공하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한계상황에 까지 이미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11세기에서 비롯된 수차례 걸친 십자군 윤정은 동서문화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으며, 이태리의 자유도시를 중심한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의 삶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게끔 하였다. 이러한 자유 시민의 삶의 태도는 봉건적인 지반에 서 있었던 귀족계급과 사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부를 축적하면서 현실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 하는 세속적 정신을 짹트게 함으로써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욕망을 일으키게 하였다.

한편, 십자군의 거듭되는 폐배는 교회의 권위를 실추케 하였으며, 나가서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충성심을 악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에 종군하기 위하여 괴중한 바용을 부담한 봉건제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종교개혁 운동

영주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으며 잇따라 몰락하였고, 이에 반하여 이들의 영토를 회수한 군주들의 세력이 점점 커짐으로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근대적인 신흥국가들의 힘은 마침내 로마교황의 종교적 권위를 유린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의 내부에 있어서도 자상적인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중세기의 신학을 체계지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스콜라철학이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붕괴하게 된 것이다.

스콜라철학의 완성자인 토마스는(Thomas Aquinas)는 이성과 신앙을 통일함으로 신학과 철학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 그에 의하면 철학은 이성, 즉 '자연의 빛'(lumen naturae)에 기초하며 신학은 계시 즉 '은총의 빛'(lumen gratiae)에 기초한다.

기독교의 교리는 초이성적인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얻어진 진리는 신앙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토마스에 있어서 철학은 이성적 신학, 즉 자연신학으로서 계시신학 밑에 놓여졌다.

그러던 것이 프란시스코(Francisco)파에 속했던 스코트스(Duns Scotus)는 토마스의 지신합일의 신학체계를 비판하여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의 분리를 요구하였다. 즉 신학의 교리는 신앙에 근거하며 철학의 이론은 신앙과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을 갖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옥캄의 윌리암(William of Ocam)의 실재론(Realism)을 비판하고 유명론(Nominalism)을 주장함으로써 스콜라철학의 붕괴를 한층 더 가속화 시켰다.

그에 의하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체뿐이고 보편은 개체에 붙여진 이름이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개체의 실제를 아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의 존재나, 삼위일체나, 보편교회나 하는 교리는 논증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 되며 그 결과 신학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가능하게 되며 과학과 철학의 영역내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신의 존재는 이성의 논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만일 보편이 없고 개체만 실제한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세 개체를 가진 三神이 될 것이고, 개인의 죄는 인정이 되어도 원죄아래 있는 죄의 보편성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

옥坎의 唯名論은 토마스의 스콜라철학을 토대로 하는 카톨릭교회 정통파에 의하여 배격되었지만 그 지지자의 수는 날로 증가되었다. 그와 동시에 유명론에 의하여 이성의 영역에서 이탈한 카톨릭교회의 신앙은 형식화된 교회의 교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신비주의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은 에칼트(Meister Eckhart)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본래 신의 불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

흔의 내부를 직관하면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신비주의는 교회의 중개없이 신자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의 지지를 받음으로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된 원인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비록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개혁의 길을 준비한 선각자들의 숭고한 회생의 결과라고 하겠다.

14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교황의 무오설에 반대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였으며, 라틴어로 기록된 산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 일부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의 전용물이 되어 왔던 성경을 일반 선자들도 읽을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후쓰(John Huss)는 로마 교회의 교리적 탈선, 특히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난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처형을 당했으며, 가톨라모 사모나롤라(Girolamo Savonarola)는 로마 교회의 부폐상을 들어 공격하고 도덕적 혁신을 주장하다가 다른 개혁자와 함께 교수형을 받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되풀이 되는 십자군의 원정은 동·서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그 결과 동방의 전 귀한 상품들이 많이 수입됨으로 로마 교회의 직분자(職分者)들이 점차 사치 풍조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도덕적인 부폐와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에 루터가 개혁의 가치를 높이 든 것이다. 한번 개혁의 불이 점화되자 이는 마치 요원의 불꽃처럼 맹렬한 세력으로 구라파 전역을 휩쓸게 되었다.

2.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속죄부 판매에 항거하여 내전 95개 조항의 내용도 결국은 이 한가지 사실로 귀착된다. 즉 면죄부가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내려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있으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으며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는 면죄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나가서 카톨릭 교회의 신앙의 모든 형식주의 도덕주의 계율주의를 극복함으로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신앙으로 돌아키려 했던 것이다.

루터도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처럼 성경의 권위를 절대화하였으나 자기의 저서가 성경에 의하여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함으로 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은 칼빈이었다. 칼빈의 개혁자신은 루터의 개혁정신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점에서 보다 철저했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경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Sola scriptura).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비기독교적인 것으

로 믿었던 칼빈은 카톨릭 교회의 존재양식과 그 신학의 대부분을 부정했다. 루터보다 한층 더 논리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중심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람의 전 생애가 결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벼름을 받을 것인가? 의연부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예정되어져 있다(이것이 칼빈의 예정설이다). 따라서 자기의 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하며 현세에서 종사하는 직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믿고 일체의 향락을 배제하고 충성으로 절약하며 근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칼빈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군림하면서 1000년이 넘도록 신자를 지옥으로 보낼 권리와 천국으로 보낼 권리와 사회에서의 생존권까지 한손에 장악하고 행세해 왔던 교황의 권위에 항거(protest)한 것은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복종하기 위하여 교황의 권위에 항거했던 것이다.

3. 한국교회의 현대적 조명

종교개혁이 시작된지 4,5세기가 경과하였으며 한국에 개신교가 전파된지 1세기가 경과되었다. 시간의 흐름이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는 스피드의 시대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3개월 걸리던 것이 기차로 12시간이 걸렸으나, 지금은 4시간 30

분이 걸린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단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있어서나고 있다. 중세기는 1000여년 동안 하나님의 사상이 지배해 왔다. 근세에 접어 들면서 하나님의 사상이 100년에서 30년으로, 30년에서 10년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종교개혁 이후의 450년 또는 개신교 전파 이래 100년의 시간의 흐름은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어간에 변질한 것보다 더 많은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實相)을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에 비추어서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 개신교가 100년의 역사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사(宣敎史)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발전하여 온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요, 초대 선교사들의 적절한 선교정책과 탁월한 지도력과 초대 교역자들의 자기 회생적인 숭고한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대륙의 선교실적과 우리 나라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우리 나라가 복음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는 장(場)인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마귀의 종도 죄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즉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 신앙의 세속화다. 현대는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함에 비하여 정신문명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균형이 두 문명사이에 재생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서 점차적으로 물질적인 것, 갑작적인 것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영의 세계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육의 세계가 더욱 크게 더욱 중요하게 끌어들여졌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복신앙은 한결같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려 하는 염원의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실용주의적인 신앙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란 현세에서의 '삶'을 기준하여 유효한 관념은 진리라고 그렇지 못한 관념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생철학의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신앙생활의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믿고 현실 생활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것이 제일 좋은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목회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어쨌든 교인을 많이 모아게 하고 현금을 많이 내게하고 웅장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 이 가장 성공적인 목회가 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청중의 기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듣기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고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재빨리 파악하여 이의 성취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축복기도를 하면 그는 좋은 목회자로 인정을 받는게 요즘 우리의 풍토이다.

어린이가 단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설탕만 계속해서 먹이면 몸이 비대해지고 충치가 생기는 것과 같이 오늘 한국교회는 신·구약 성경에서 달콤한 구절만 골라서 계속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교권주의가 차차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생과 우주와 교회의 주가 오직 하나님 한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지교회나 교단의 분리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데 있는 것이다. 교회서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불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파당이 생겨서 갈리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종교개혁의 원정신과는 너무나 위배될 뿐만아니라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속의 우리 교단에는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되찾는 조용하면서도 내실이 있는 개혁의지가 뜻사람들의 가슴에서 싹트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

기독의 사람 브레이너드

김명혁
합동신학원 교수
강변교회 목사

필자는 본 글에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기독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였다. 그는 단지 수백명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라는 꽃다운 청춘에 폐결핵과 지나친 과로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기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그는 기독으로 숨쉬고 기독으로 움직이다가 기독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 사람은 1718년 미국 키네티컷주 해담이란 도에서 태어났고 그의 짙음을 미국 인디언들을 위해 몽땅 불태우다가 1747년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David Brainerd(데이빗 브레이너드)이다. 그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Jonathan Edward(요나단 에드워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브레이너드는 또한 영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또한 William Carey(윌리암 케리), Henry Martyn(헨리마린), Jim Elliot(짐 엘리ott)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가슴을 움직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위대한 교회사가인 K.S. Latourette(라토렛) 박사는 "브레이너드는 수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여 그들이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도록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무엇이 수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였는가? 브레이너드의 유창한 설교였을까? 아니다. 그의 굉장한 업적이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기독에 푸른 그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온 그의 말들과 그의 삶이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유창한 설교에 의해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회자나